불자 세상보기

방귀희
솟대문학 발행인, 방송작가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

얼마 후면 엄마 일주기가 돌아온다. 벌써 돌아가신지 1년이 됐다. 엄마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난 1년을 거뜬히 살아냈다. 두 다리는 물론 두 팔도 자유스럽지 못했던 나는 47년 동안 엄마를 의지해서 살았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엄마 없으면 한(寒)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살 궁리를 해라."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 딸을 강하게 키우셨던 것이다.

철없던 시절 난 엄마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위에는 장애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가족이 포기한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잘 보살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텐데 버려진 장애인은 장애 속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장애인이 되고 만다. 장애 때문에 버림을 받은 순간 이미 한 번의 커다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천륜을 끊어버리고 이 넓은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니 그것은 죽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장애인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먹고 자는 것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꽁꽁 언 몸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미인가 시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요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후원의 손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예전처럼 설날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다. 사회적 무관심이 장애인과 같이 불우한 이웃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원생이 50명이면 그 가운데 절반은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장은 원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란다.

호적이 없는 무호적자가 많아서 의료 보험이 안돼 병원비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인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신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나누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우리는 흔히 남을 돕는 일을 좋은 일 이라고 하면서 착한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은이라고 하였다. 은혜에 보답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빚이다. 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니까 되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또한 육바라밀의 첫 덕목인 보시의 가르침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이들에게는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관심이 큰 보시가 되기 때문이다.

장애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묻혀 살고 있다. 사회의 무관심에 괴로워하는 불우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제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래야 작은 행복도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도 이런 더 큰 행복이 있는 세상일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전문화 되는 종무행정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이 조계종 총무원 내 법률지원단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다. 불교 종단에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영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 때에, 특히 그 필요성이 절박했던 법률 계통의 전문가가 영입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출세간적인 종교로 여겨지고 있고, 그 종단의 핵심을 이루는 출가인들은 그 출세간성의 표상으로 비쳐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교로 서기 위해서는 세간과 밀접하게 교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 문제는 발생한다. 그런 경우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잃기 쉬울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기 쉽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는 많은 재가자들이 실무진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 위에 스님들의 출세간적인 성향이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혼입되어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체제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일의 결정과 추진, 집행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리에 초연한 출세간적 정신을 바탕에 두되, 그러하기에 더더욱 세속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치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청정 종단의 위상이 서는 것이다.

물론 조계종 총무원이 이러한 방향을 올바로 지향하고 있었기에 이번의 법조인 영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전문인력이 불교 종단을 가장 좋은 일터로 생각할 만큼 높은 처우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세련되고도 수준높은 대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나가는 불교로 그 위상을 세워야 한다. 가장 올바르고 뛰어난 세간법의 운용을 보일 때 출세간적 정신의 수승함도 선양된다. 이번에 불교계에 봉사를 하기로 한 두 법조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에 뒤따르는 종단적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종단들이 전문인력의 양성과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아침형 인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도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아귀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보살본행경〉

'실미도'와 '아침형 인간'. 요즘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는 영화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다. 영화는 '웰 메이드'로 매스컴의 상찬을 받고 있고, 책은 '웰 빙'과 성공을 얘기한다. 이런 점 말고는 둘 사이의 유사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메시지는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다. 영화는 국가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개인의 시각에서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책은 철저하게 '개인의,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성공을 속삭인다. 여기서 영화와 책의 접점을 발견한다. 개인!

영화는 '호전적 애국주의'라는 최악의 국가주의에 희생된 개인에 대한 진혼곡으로 읽힌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한편, 영화 속의 개인이 아닌 2004년 지금을 살고 있는 개인은 '아침형 인간'에 열광한다. "남보다 앞선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모든 인간이 아침형 인간이 된다면? 모두 다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우뚝 서 있을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아침형 인간이 존재한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적인 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 사회는 경쟁 탈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공한 아침형 인간도 마음은 편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아침형 인간이기는 힘들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성공 신화는 실패한 아침형 인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아침형 인간'이 파고 있는 함정이 그것이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나는 조그만 영세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불자다. 우리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일해 온 불법체류 숙련공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이유는 프레스와 선반 등의 조작과 쇠를 깎는 등의 힘든 일에 우리 근로자가 없는 까닭이다.

이들은 모두 불교인이지만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가까운 곳에 불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찾을 수 없었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다.

중생과 함께 한다는 불교가 외국인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 일한만큼 대접 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주영호(안산시 고잔동)

파괴되는 우리 글과 말

요즘 우리 말은 수난을 겪고 있다. 잘못 쓰이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영어 같은 외국어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 영어가 이제 거의 모든 기사에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이벤트, 세미나, 릴레이, 체크, X파일, 메시지, 프로그램…. 이처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외국어들이 부지기수에 달한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의 사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약간의 언어 혼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언어문화가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인터넷을 '누리그물'로 쓰자는 글을 아주 감명깊게 읽은 일이 있었다. '누리그물'은 온 누리를 엮는 하나의 큰 그물로서 불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한다.

'아름답다'는 원래 나답다(우리답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외국어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일이 우리다운 일인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 쓰는 일이 우리다운지 깊이 생각해보자. 언어는 그 시대의 정신이다. 과연 지금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황인용(서울시 반포동)

공부하는 스님 많아야

조계종이 승가교육제도를 실질적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로 바꿔 승려의 자질을 높인다는 보도를 보았다. 승려 자질 향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과제 중의 하나였다.

스님은 인천의 사표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보리를 증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제대로 교육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스님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스님들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식 이하의 스님도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재가불자들이 스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스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사미(니)가 스님 노릇을 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스님인양 법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승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톨릭과 원불교가 성직자와 신도간 명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교육을 통해 성직자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의 자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불교도 승가교육체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와 불자들을 선도하는 스님들을 보다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유정선(수원시 장안동)

< 8면 「상식퍼즐」 정답>

구	전		주		명		경	제
정	법	안	장		왕	조	시	대
	륜		자	금	성		풍	
업	경	대		리		부	조	리
		명	예		자	재		
교	법	사		불		자	주	권
	신		명	명	식		변	
경	사	대	부		도	둑	장	가
도	리		전		락		치	부

'현대'만평 심 민 섭

효사 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 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생氣 부적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 덩어리 복 덩어리 황금 덩어리 氣가 막힌 복이 들어와 황금 운으로 변합니다.